

# 고흥군,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농업 중심지 '우뚛'

정부 공모 국책사업 2건 동시 선정  
산자부·기후부 과제 439억원 규모  
에너지 플랫폼·탄소제 AI기술 실증  
전남TP 연계 테스트베드 집중 육성

고흥군이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를 무대로 매머드급 에너지 융합 국책과제를 잇따라 따내며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농업'의 독보적 중심지로 우뚛 서고 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농업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한 총 439억원 규모의 정부 공모 국책사업 2건에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인 '직류 기반 스마트팜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202억원을 전격 투입한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고 직접 활용하는 혁신 기술로,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농가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고효율 순환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대표적 국책

과제인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에도 최종 이름을 올리며 오는 2029년까지 237억원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배출 제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됐다.

이는 햇빛 투과율 조절이 가능한 투과형 태양광 모듈과 잉여 전력의 열에너지 전환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팜의 전력 소비를 최대 50%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는 핵심 프로젝트다.

두 대형 사업은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단지의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기술 검증부터 실제 농가 보급, 안정적인 수익 모델 창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민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 전경. <고흥군 제공>

거시적 전략을 세웠다.

이곳에서 검증된 탄소중립형 농업 모델과 최첨단 에너지 관리 기술을 하나로 패키지화해, 향후 중동·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차세대 'K-스마트팜'의 독보적인 수출 거점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관계자는 "기후 위기와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농가 경영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다"며 "전남테크노파크의 탄탄한 인프라와 참여 기관들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해 고흥군이 글로벌 탄소중립 농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속가능한 첨단 농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장성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인 장성 고고탐험대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교육지원청 제공>

## 장성 학생들, 독서·현장 잇는 '고고탐험대' 활동

장성교육지원청, 초·5·6, 중·1·2학년  
선비·문화·숲·나라사랑·수생 주제로

장성교육지원청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현장 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인문학 프로그램인 '고고탐험대'를 운영하고 있다.

19일 장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달 한달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천형 탐구 프로그램인 '장성 고고탐험대'를 운영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성의 숲·역사·문화·생태

공간을 학생들이 직접 누비며 배움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교육 활동이다.

책을 통해 얻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교실 안의 독서를 실제 삶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탐험대는 학생들이 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비·문화, 숲, 나라사랑, 수생 등 4개 특화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각 과정은 관련 도서를 읽고 탐구 질문을 만드는 사전 활동, 지역 명소를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는 현장 체험, 포토 에세이와 신문을 제작하며 성찰하는 사후 활동 등 3단계로 촘촘하게

구성됐다. 세부 일정에 따라 지난 9일과 16일에는 선비·문화 및 숲 탐험대의 사전 교육과 현장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오는 23일과 30일에는 나라사랑 및 수생 탐험대의 사전 활동과 현장 체험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정선영 교육장은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책과 현장을 연결해 스스로 탐구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핵심 프로그램이다"며 "장성만의 특색을 살린 학생 참여형 인문·생태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자

## 담양소방, 부처님오신날 대비 화재 예방 총력

목조문화유산 등 7곳 안전컨설팅

담양소방서는 19일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주요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유산 등 7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이 많고 대부분 산림과 인접해 있는 전통사찰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이나 소중한 문화유산 소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는 실무 중심의 안전컨설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용흥사를 직접 방문해 연등 행사 관련 화재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자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 옥외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핵심 소방시설 가동 상태 확인, 연등·촛불 등 화기 취급 시설 안전지도, 사찰 주변 무단 소각행위 금지 안내 등을 전방위로 추진 중이다.

이중회 소방서장은 "전통사찰은 지형 특성상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을 찾는 많은 방문객이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예찰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곡성 대표 농특산물 '멜론' 출하  
농협 등과 초매식...유통 등 지원

곡성군의 대표 고소득 농·특산물인 멜론 '곡성멜론'이 올해 첫 수확의 결실을 맺고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멜론 주식회사와 곡성농협에서 각각 첫 출하를 기념하는 초매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확 시기에 돌입했다.

현재 200여 농가가 112ha 규모로 재배 중인 곡성멜론은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유기물이 풍부한 최적의 토양 조건에서 자라 전국 최고 수준의 당도와 품질을 자랑한다.

여기에 육묘부터 수확·선별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더해져 프리미엄 브랜드 작목



곡성멜론 출하 기념식 모습. <곡성군 제공>

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또한 고품질 멜론 생산과 유통망 강화를 위해 군은 공동 선별용 포장재와 유통·물류비를 지원하고, 특히 지난해 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 31t(약 10만달러)을 수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첫 출하를 시작으로 곡성멜론은 오는 8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과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며, 군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멜론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작물이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환적 허용 정부 건의"

여수상의, 공급망 위기 대응 촉구

여수상공회의소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수항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 제도 정비에 나섰다.

19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에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환적(STS) 허용 검토 및 제도 정비'를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중동발 공급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원료 수급에 큰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안정적인 기초 원료 확보와 물류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여수항의 해상환적 작업은 W정박지와 일부 D-2 정박지에 집중돼 환적 대기 시간 증가와 해상교통 혼잡 등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반면 D-1 정박지는 충분한 수심과 넓은 해역을 갖춰 초대형 원유운반선 수용이 가능함에도 행정·제도적 제약으로 활용이 철저히 제한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단순히 정박지 하나를 추가로 활용하지는 차원이 아니라 여수국가산단 원료 수급 안정과 국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장흥군,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직무 교육

부과·징수 등 맞춤형 실습 진행

장흥군은 "최근 군 전산교육장에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부터 도입돼 고도화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복잡하고 다양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부서별로 근거 법령과 조례가 제각각이어서 담당자의 높은 숙련도와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분야다. 이에 따라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시스템 운영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차세대 시스템을 직접 구동하며 세외수입 부과 및 고지, 결의 처리, 과태료 대장 관리, 체납 처분 및 과납 관리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 기능들을 익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자재원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혁목기자

## 화순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착수

7월31일까지 성인 900여명 대상

화순군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습관과 질병 상태를 파악해 지역 맞춤형 보건요령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지역 내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매년 군민들의 실제 건강 수준과 행태 변화를 세밀하게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체계적인 통계 산출을 위해 질병관리청,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전문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1대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 조사 항목은 흡연·음주·신체활동 등 기초적인 건강행태부터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 이환 여부, 사고·중독, 전반적인 삶의 질 등 총 17개 영역 16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박미라 군보건소장은 "해당 조사는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촘촘한 맞춤형 보건 정책을 설계하는 데 쓰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다"며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